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청년주일입니다. 늘푸른사랑방과 젊은이사랑방에서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축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전반기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김다솔집사 18일(수)에 둘째 아기(아들)를 출산하였습니다.
- 멧쟁이학교 홈커밍데이 행사가 28일(토) 11시부터 있습니다.
- 다음 주일(29일)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교회로 소풍가요’ ‘가정의 추억 만들기’ 로 지킵니다.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사진 촬영을 준비해 주십시오.
- 다음 주일(29일) 예배후에 교회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체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안건은 교회정관 일부 개정안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에 실행위원회별로 1/4분기 정기회의를 모입니다.
- 늘푸른사랑방 정예찬 청년이 24일 군에 입대합니다.
- 6월 첫째 주일(5일)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오후에 청백전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이어람 청년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21 호
2022년 5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

군대에 있을 때, 포천 송우리 출신의 병사 한 명과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 의외로 공통점이 많아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하늘밖에 없는 환경이 지루했는지, 문득 그는 저에게 손금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주었던 그 병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생명선이 짧거나 비틀려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말하기를, 손바닥 위에는 커다란 선 말고도 수많은 잔선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옆에서 평행한 채로 있는 것들이 바로 보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선으로서, 손의 주인인 사람을 돕거나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손금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닌 주변 인연도 함께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자신은 손금 따윈 믿지 않는다고도 덧붙이더군요.

저는 멋쟁이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와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실령 실수와 잘못을 밥 먹듯 저지르거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서로가 쌓여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한다던가, 생일을 챙겨준다던가, 습관을 파악한다던가, 놀릴만한 추억을 떠올리는 등의 모든 존재감 말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지속하며 점차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늦어도 졸업할 때가 될 즈음엔 은연중에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싫든, 아쉽든 반갑든, 이 모든 경험이 자신의 속에서 소멸하는 일은 없겠노라고.

세상에는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갓난아기에게겐 자신이 형성되었던 장소인 어머니가 세상과의 가장 단단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게 있어서도 갓난아기는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로서, 대단히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탄생 과정에서조차 사람은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가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맺는 관계에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는 행위로 보통 결혼식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흔히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회중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식 결혼식에서는 서로를 사랑하여 결합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까지 함께했던 고마운 인연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놓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연결된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얹힌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인연들이 서로를 구성했다는 것, 그 인연들을 허락하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인연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과 공간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다양하고도 은혜로운 경험을 거듭하며,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가능성을 가진 서로의 내면에 웃음을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을 더 밝고, 멋지고, 상쾌한 광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떠올리고 그리울 만한, 아직도 제 눈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 성도와 더 깊은 사이, 이웃과 더욱 좋은 사이가 되는 우리 사랑방공동체, 늘푸른사랑방, 젊은이사랑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마태복음 18:19-20)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봄은 세상이 생기로 넘쳐납니다. 푸르른 잎이 가득한 산들과 예쁘게 핀 꽃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계절 마다 각각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오랜만에 광릉수목원에 갔다 왔습니다. 평소 가는 옥림호와는 반대로 예쁜 수생식물원과 난대온실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덩굴터널을 지나 연못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며 친구들이 사진 찍고 싶다며 여기저기에서 멋진 포즈를 하고 기다리는데 멋진 작품을 많이 찍었습니다. 난대온실에 가보니 봄 곤충 특별전시를 하고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곤충이 번데기가 되었다 변하는 모습, 살아있는 벌레를 만지고, 현미경으로 작은 벌레들을 관찰하는데 징그러워하면서 재미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꾸러기들이 벌레를 구워서 만든 과자를 구경하는데 꾸러기들에게만 특별히 나눠주셔서 맛난 간식을 먹었습니다. 구운 작은 벌레들은 생각보다 고소한 맛이 나 친구들이 아주 씹씹하게 잘 먹었습니다.

꾸러기들의 신나는 나들이, 이번에는 뮤지컬 '알사탕'을 보기 위해 서울로 나갔습니다. 공연시간이 늦어 옆에 서울숲으로 가서 신나게 놀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와서 부쩍부쩍 했지만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신나게 서울숲을 즐겼습니다. 지난 번에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한 친구들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큰소리 때문에 약간 무서워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뮤지컬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차에서 뮤지컬 재밌었다고 신났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무섭지 않고 씹씹하게 잘 볼 것 같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어린이는 목·금 1박2일 동안 캠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이틀 동안 텐트에서 그냥 자는 여행이지~ 하는 이들도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요 ~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중 제일로 교사와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가 모두 긴장 하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빠선생님을 섭외해서 동행해야 할 만큼 불꽃같은 눈으로 돕는듯 안돕는듯 어린이들 곁을 지켜야 합니다.

세끼의 끼니와 틈틈이 먹을 새참까지 조장과 조원들이 메뉴를 짜고 온갖 식기류와 불과 칼과 식재료를 지고 메고 갑니다. 이번엔 사정상 학교 근처 캠핑장으로 결정을 해서 오가는 시간을 벌었지만 실전의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송글송글 조장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썰고 볶고 끓이며 살짝 손가락을 데이기도 하며 멋진 식사를 차려내는 어린이들이 기특했고 맛도 짱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되는 훈련, 사는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남을 보는 시작이 모든걸 엑기스처럼 진하게 맛보는 캠프여행! 이 취지가 잘 살려졌을까요~?

개개인의 가슴에 버터처럼 녹아 스며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문해주신 정태일 목사님, 김종필, 서병욱 집사님과 어린이학교선배 석지인 청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린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날씨가 제법 더웠지만 아직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멋쟁이들은 사계절의 옷을 하루에 모두 입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생활표어는 "하루에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였습니다. 이번 주엔 잘 실천하고자 생활표어로 정한 듯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아는 것 같습니다 :) ㅎㅎ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경기도 교육청 안전체험관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화재, 풍수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멋쟁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멋쟁이학교 '홈커밍데이'로 금요일에 귀가하지 않고 토요일 행사 후에 귀가합니다. 비록 몸은 조금 더 피곤할지라도 동문선배님들, 선생님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교사 : 박예나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전도서 12 : 1-2 인도자
8 다함계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계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에베소서 2 : 10 인도자
575 다함계
다함계
막에나 청년

공동기도
목회기도 <대표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10 : 1-2, 16-23 김성기 청년
나의 가는 길 늘푸른·젊은이사랑방
“ 슬기롭고 순진해져라 ” 최기찬 전도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74 다함계
정예찬 청년
516(1) 다함계
설교자
정태일 목사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예지 김이레 박예영 임세진 / 봉헌위원 : 엘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위를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슬기롭고 순진해져라

예수께서 제자 열둘을 보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내보내실 때 이스라엘에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을과 고을에 들어가 고쳐주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을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으로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의 변화 열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생활 하면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만큼의 슬기와 믿음의 확신을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에 힘입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혼란하고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파송후 돌아와 예수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차례 이상의 열두제자의 파송은 여러 곳에 흩어져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생활과 삶 속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지역과 문화,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슬기와 믿음의 순결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로움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임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봄은 세상이 생기로 넘쳐납니다. 푸르른 잎이 가득한 산들과 예쁘게 핀 꽃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계절 마다 각각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오랜만에 광릉수목원에 갔다 왔습니다. 평소 가는 육림호와는 반대로 예쁜 수생식물원과 난대온실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덩굴터널을 지나 연못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며 친구들이 사진 찍고 싶다면 여기저기에서 멋진 포즈를 하고 기다리는데 멋진 작품을 많이 찍었습니다. 난대온실에 가보니 봄 곤충 특별전시를 하고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곤충이 번데기가 되었다 변하는 모습, 살아있는 벌레를 만지고, 현미경으로 작은 벌레들을 관찰하는데 징그러워하면서 재밌어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꾸러기들이 벌레를 구워서 만든 과자를 구경하는데 꾸러기들에게만 특별히 나눠주셔서 맛난 간식을 먹었습니다. 구운 작은 벌레들은 생각보다 고소한 맛이니 친구들이 아주 씩씩하게 잘 먹었습니다.

꾸러기들의 신나는 나들이, 이번에는 뮤지컬 '알사탕'을 보기 위해 서울로 나갔습니다. 공연시간이 늦어 옆에 서울숲으로 가서 신나게 놀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와서 부쩍부쩍 했지만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신나게 서울숲을 즐겼습니다. 지난 번에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한 친구들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큰소리 때문에 약간 무서워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뮤지컬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차에서 뮤지컬 재밌었다고 신났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무섭지 않고 씩씩하게 잘 볼 것 같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어린이는 목·금 1박2일 동안 캠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이틀 동안 텐트에서 그냥 자는 여행이지~ 하는 이들도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요 ~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중 제일로 교사와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가 모두 긴장 하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빠선생님을 제외해서 동행해야 할 만큼 불꽃같은 눈으로 돕는듯 안돕는듯 어린이들 곁을 지켜야 합니다.

세끼의 끼니와 틈틈이 먹을 새참까지 조장과 조원들이 메뉴를 짜고 온갖 식기류와 불과 칼과 식재료를 지고 메고 갑니다. 이번엔 사정상 학교 근처 캠핑장으로 결정을 해서 오가는 시간을 벌었지만 실전의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송글송글 조장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썰고 볶고 끓이며 살짝 손가락을 데이기도 하며 멋진 식사를 차려내는 어린이들이 기특했고 맛도 짱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되는 훈련, 사는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남을 보는 시각이 모든걸 엑기스처럼 진하게 맛보는 캠프여행! 이 취지가 잘 살려졌을까요~?

개개인의 가슴에 버터처럼 녹아 스며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문해주신 정태일 목사님, 김종필, 서병욱 집사님과 어린이학교선배 석지인 청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린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날씨가 제법 더웠지만 아직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멋쟁이들은 사계절의 옷을 하루에 모두 입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생활표어는 "하루에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였습니다. 이번 주엔 잘 실천하고자 생활표어로 정한 듯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아는 것 같습니다 :) ㅎㅎ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경기도 교육청 안전체험관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화재, 풍수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멋쟁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멋쟁이학교 '홈커밍데이'로 금요일에 귀가하지 않고 토요일 행사 후에 귀가합니다. 비록 몸은 조금 더 피곤할지라도 동문선배님들, 선생님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교사 : 박예나 >

한주간의 말씀

“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아가서 8:5~14
제목 : 사랑의 완성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86 295 400 219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5~7절 <사랑의 결실, 결혼>

사과나무는 출산을 의미합니다. 솔라미 여인은 사랑의 과정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이 사랑의 불길은 바닷물로도 강물로도 잡지 못합니다.

8~10절 <오빠들의 걱정과 여인의 대답>

아직 어려서, 청혼을 받게 되는 날이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11~14절 <여인의 기쁨과 요청>

포도밭, 천 세겔, 소작인, 이백 세겔, 빨리 오세요.

2. 내용의 의미(Why)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하며, 사랑의 불길은 바닷물과 강물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은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포도원을 돌보던 누이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소작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베풀어 줍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가정을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 모두 애쓰자.
- ②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거절하자.
- ③ 나눔을 실천하자.

성서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로마서 8장 31-39절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북한을 위한 기도 >

북한에 코로나 19확진자 증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고, 외부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지도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인도적인 지원이 북한에 지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메노나이트 예수마음 교회를 위한 기도 >

- 지체들이 섬기고 있는 평화 교육과 영성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1) 출산을 앞둔 가정을 위해.
- (2) 어린이 학교 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 (3) 젊은이 주일을 준비를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가정의 달을 맞아 매 주일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5월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생활공동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함께 모여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야외 식사는 가능해져 토요일에 함께 공동체 마당에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준비하려 온 늘, 젊은이 청년들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주신 가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받은 푸른 채소로 가득합니다. 기르는 손길의 노고를 기억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요로움입니다. 앞으로 여러 작물들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